

7월부터 노선버스 특례업종서 제외 ·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전남도, 주민 교통불편 최소화 총력

최근 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 이어 오는 5월 2일 현장점검

시군별 비상수송대책 마련키로...내실있는 대응방안 수립

전남도가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운수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이어 오는 5월 2일부터 현장 점검을 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7월부터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근로 68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2019년 7월부터는 운수업체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 52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운전자 추가 확보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간담회 결과 운수업체 추산 1100

여 명의 운전자를 추가 채용해야 하나 단기간 내 운전자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도와 시군 운수업체가 함께 버스 운행 횟수 감회, 운행 시간 조정, 운행차량 감축, 노선 단축 및 폐지를 우선 검토하고 시군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5월 2일부터 시군과 함께 운수업체를 방문해 운행 노선과 시간을 점검하고 운수사업자와 종사자의 면담을 갖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에 따른 버스 운행 방안을 협의해 내실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노선버스 1일 2교대 제 전환에 따른 운전자 충원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업체 취업 희망자 자격 취득비, 연수비를 지원하거나 운수업체의 추가 인건비나 운전자 임금보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을 마련해 도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수사 경영 개선 지원 및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절주 홍보관 운영

광주 동구가 지난 26일 조대부고에서 학생 및 교직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 홍보관'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교 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규주·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일산화탄소(CO) 측정 ▲ 흡연 폐 모형 및 절주패널 전시 ▲ 행운을 잡아라 금연·절주 톨렛 ▲ 금연상담 등이 진행됐다.

또 추석에서 금연·절주 관련 추석표어 및 2행시 짓기가 진행돼 인기를 모았다. 학생들은 "금연하고 연속으로 술도 끊자", "흡연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금연을 시작하면 연기가 사라져요", "담배피면 애인 안 생겨요" 등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뽑았다.

서구, 내일은 JOB잡아라 취업박람회 개최

광주 서구가 오는 5월 3일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8 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서구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것.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서구 취업박람회는 서광주 청년 요양병원 등 10여개의 구인업체가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현장 면접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오지 못한 강소기업들의 구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구직자들의 이력서 사진 촬영과 이력서 작성요령, 이미지 컨설팅, 취업 티로카드, 건강검진 등 다양한 구직지원 서비스도 이뤄진다.

남구, 5월까지 어린이집 놀이시설 일제 점검

광주 남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남구 관내 어린이집 놀이시설 53곳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및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특히 남구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법정 점검항목 83개를 나열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부대시설 및 그네, 놀이터, 미끄럼틀 흔들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정글짐 및 건너는 기구, 오르는 기구, 매달리는 기구 및 공중 놀이기구를 점검하기로 했다.

북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시동

광주 북구가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북구는 지역 노사단체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지난 5일 노동계, 경영계, 주민 및 정부대표 등 20명의 위원이 참여한 '2018 북구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분회의'를 개최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및 일가양육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을 결의했다.

또한 ▲노사민정 인프라 강화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노사민정 상생강화 ▲지역 일자리창출 등 4대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광산구, 광주지동화고 명상숲 개소

광주 광산구가 광주지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에 조성한 명상숲 '가운길'이 지난 28일 개소했다.

광산구는 학교 안 공터 약 500㎡ 부지에 '가운길'을 조성했다.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심고 싶은 나무를 선정하고, 산책을 즐길 동선을 설계에 반영했다. '가운길'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은목서, 남천 등 나무 728주와 애란 비비추 등 초화류 1900여주를 심었다. 초화류 일부는 학생들이 직접 심어 명상숲 조성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여기에 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벤치도 들여놓았다.

임형택 기자

전남 관광투어 버스 '남도한바퀴' 5월 체험형 특별상품 출시



전남도는 5월 가정의 달과 봄 여행주간을 맞아 최근 인기리에 운행 중인 남도한바퀴에 가족단위 여행객 타기 템플라이프 등 각종 체험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화마을과 산수유공원으로 인기가 있었던 광양-구례 꽃길여행 상품은 5월부터 '담양-구례 숲길여행'으로 바뀌어 담양 하천습지와 구례 쌍산재, 섬진강변 벚꽃길을 찾아가는

영산강 8경으로 불리는 담양 하

천습지는 국내 최초 하천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철새들의 집단 서식지인 대규모 대나무숲이 형성돼 있어, 휴식과 힐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전망이다.

또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흥-나주 문화여행'에 황포돛배체험을 더했고 기존 '진도-진도 웰빙길 걷기' 외에 '항도문화여행'을 추가 운행한다.

토요일에 진도계 테마파크와 토요일에 상쾌한 공기와 함께 웰빙길을 걷는 등 다채롭게 진도를 즐길 수 있다.

5월에는 20개의 정규상품 외에 봄 여행주간과 연계해 드라마·영화 속 여행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상품이 관광객들

담양-구례 숲길여행 · 장흥-나주 문화여행 등 추가

을 기다린다. 영화 '1987' 촬영지인 목포 '연희네 슈퍼'와 나주 천연 염색체험이 가능한 '연희를 만나볼', 해남 미황사 템플라이프와 두륜산 케이볼카를 체험할 수 있는 '땅끝에서 바라볼' 등 4개 상품이 5월 13일까지 총 8회 운행된다.

올해 남도한바퀴는 현재 150회 운행되는 동안 총 5647명, 버스 1대당 평균 37.6명이 이용했다.

지난 16일 5월분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하루 만에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섬여행, 고흥 썬서여행, 해남-완도 힐링여행 등 인기 상품이 매진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방옥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남도한바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열차 연계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무안공항 국제선 정기편 개선을 대비한 외국인 전용 상품도 5월께 출시해 남녀노소 내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남도한바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도한바퀴'는 개별 여행객이 늘고 대중교통 접근이 취약한 전남지역 관광지 연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남에서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21개 상품에 평균 32명이 탑승해 전남의 명품 여행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남도한바퀴 예매는 홈페이지(<http://diytour.jeonam.go.kr>)와 금호고속 전용 상담센터(062-360-8502)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대구 여성단체 '달빛동맹' 교류

대구 회원 45명 광주행...광주 회원들은 10월 방문 예정

광주시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달빛동맹'에 여성계도 참여했다.

광주시는 27일 '광주-대구 달빛동맹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대구 지역 여성단체 지도자 45명이 광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달빛동맹은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앞 자를 딴 것으로 양도시 교류의 상징이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여성단체 교류협력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우수사업 교류와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진행해 왔다.

대구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날 여성친화마을인 광주 북구 시화마을을 탐방하고 나주 영산강 황포돛배, 광산구 월봉서원 등을 체험했다.



광주 여성단체 회원들은 오는 10월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애리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양 도시의 여성 관련 우수

시책을 교류하고 유대를 돈독히 해 광주시와 대구시가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나주 · 장성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소득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지정·건설 폐기물 처 ▶석면 해체공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급여체계 정비사
- ▶4대보험 무료대행
- ▶산재업무대리
- ▶징계(해고)자문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